

# 아이디어가 현실로, 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 02-2110-2083)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디어 실현의 장입니다

<http://www.creativekorea.or.kr>



##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타운

○ 타운 구축부터 아이디어 제안, 창업 성공 등 전 서비스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 <주요 서비스>

- ① 아이디어 제안 :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제안
- ② 전문가 멘토링 : 기술, 경영, 법률, 회계 등 전 분야의 최고전문가 멘토링 제공
- ③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 창업, 사업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 ④ 창조경제 사례 : 다양한 분야별 창조경제 성공사례 소개



## 「아이디어 ⇒ 권리화 ⇒ 자금 ⇒ 시제품 ⇒ 마케팅」 단계별 멘토링 제공

-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다양한 전문가 멘토가 도와줍니다
-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민간의 사업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창조 아이디어 제안

-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하세요, 전문가 멘토링으로 지원합니다.
- 지식재산권,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발전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공유 아이디어 공간

- 생활 속 지혜, 제품 아이디어, 창업 경험, 사회 문제 등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 각 분야의 멘토와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창조경제 사례

- 기업, 개인, 연구소 등의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교육·문화, 안전·의료·복지, 환경·에너지 등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전시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멘토링으로 지원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더하고 나누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www.creativekorea.or.kr](http://www.creativekorea.or.kr)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사업 안내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 02-2110-1897)

-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를 시중가의 약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 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이며, TV 구매는 1가구당 1대로 제한
  
- 구매한 TV로 저렴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이용을 원하는 경우, 추가 요금부담 없이 케이블방송 최저가 상품(4,000원)을 디지털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보기 등의 양방향 서비스 또는 더 많은 채널의 방송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30% 내외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요금감면은 케이블TV 20%-60%, IPTV 및 위성방송은 30% 수준
  
- 저렴한 디지털TV 구입을 희망하거나 여러 방송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저소득층은 디지털 TV 보급 지원센터(02-737-2763)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운영

(자료제공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2-2100-6937)

## □ 주요 내용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1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음

※ 연구학교 시범 운영('13)→연구·희망학교 확대 운영('14~'15)→전면시행('16)

## □ 학교현장의 변화

-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형성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와 반응이 나타남

< 대통령,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장 방문시 말씀(11.21) >  
“점수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보다 각자 꿈꾸는 미래의 인생 향로를 안내해 주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 돼야 한다.” 며 “자유학기제를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 (학생)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친구들과의 협동학습 등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고 몰입도가 높아짐
- (학부모) 처음에는 자유학기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녀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밝아진 모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심
- (교원) 수업 준비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업무에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낌

## 참고 1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장방문 (서울신문, '13.11.22)

서울신문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005면 종합

# 박대통령 “자유학기제가 개혁 출발점”

시범운영 서울 동작중 방문  
‘대선공약... 정책방안 모색’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서울 사경동의 동작중학교를 방문해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점수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보다 각자 꿈은 미

레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토론·실습 등의 참여형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진로탐색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교육강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은 수업을 참관한 뒤 “모든 게 시험으로만 가면 (학생들) 열자리의 소중한 친구가 경쟁자가 되고 이는 학생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이고 힘든 일”이라며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겐 기꺼이 가서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어떤 지식보다도 훌륭한 배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의 목표가 각자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며 “교육을 영어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뜻은 ‘끌어내는 것’이라면서 “(교육을) 주입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나 각자 갖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때 자유학기제의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동작중을 포함해 전국 42개 중학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이를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연택 기자 ln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동작중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과학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의 한 학기 수업 운영을 토론·실습 중심의 참여형으로 바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참고 2

##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학부모 기고 (한국일보, '13.9.26)

한국일보

2013년 09월 26일 목요일 A29면 오피니언



| 기 | 고 |

### 자유학기제 통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최기화 울산 연암중학교 학부모회장

우리 아이가 재학 중인 울산 연암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렘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설렘이고,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아 아이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염려했던 부분은 매일 저녁 밤상머리에서 나누는 딸과의 대화를 통해 말끔히 해소됐다.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간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시험(중간고사)을 치르지 않는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어와 미술 과목을 연계하여 국어 수업에서 하회탈의 가치를 배우고 미술시간에는 직접 하회탈을 만들어 본 뒤 다시 국어시간에 자신이 만든 하회탈을 쓰고 역할극을 해 보는 활동은 기존의 수업 방식과 크게 달랐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시간에 직접 머리 둘레를 재어서 계산하는 활동, 과학시간에 감자를 이용한 요오드 실험, 사회시간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직접 투표를 해보는 경험 등 책 속에만 갇힌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지식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업은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협동수업으로 이뤄졌다. 딸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차곡차곡 보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업시간에 소외되었던 친구들도 모두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진 수업을 통해 살아 있는 지식을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협동심을 키워 간다는 점이 부모로서 너무 기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동아리활동에도 참여하는데 과학자가 꿈인 딸은 “다양한 직업 속 과학”이라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고 있다. 딸은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귀띔했다.

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총 4개의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딸은 ‘토론의 달인’이라는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제가 갖추어야 할 토론과 발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 딸은 내년 2월까지 ‘UCC의 달인’, ‘코스모(우주)는 나의 것’, ‘동화책 삽화가 되어 보자’ 등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라며 기대하고 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진행되는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도 신선하고 유익하다. 딸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했는데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진로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요즘 딸은 매일매일 수업이 기대되고 학교에 가는 걸음이 가볍

고 설렌다고 한다. 필자 역시 오늘 저녁 밤상머리에서는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즐거운 이야기거리를 풀어 놓을까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매일이 설레고 즐겁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 자유학기제는 1학년 2학기에만 시행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다가 2학년이 되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못 걱정스럽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유학기제가 단지 한 학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우리 아이들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당장 눈앞의 시험성적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학기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이를 통해 자기 스스로 삶의 목표와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자녀를 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더불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행복한 미래를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으면 하고 소망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전반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 행복을 위한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 우리 학교가 행복해졌어요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 진로탐색 활동**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를 그려보아요.
- 학생 중심 수업**  
시험에서 벗어나 생생한 지식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스스로 탐구해요.
- 동아리 활동**  
관심 있는 동아리에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꿈과 끼를 키워요.
- 예술·체육 활동**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접하는 것을 찾아봐요.



###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유학기에는 국·영·수 수업을 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국·영·수 등 기본 교과 수업은 충실히 진행됩니다. 강의식, 암기식 수업은 줄이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 위주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학기에는 시험을 보지 않나요?**  
자유학기제와 지정된 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의 지필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형성평가 등을 학교별로 시행하여 미진한 부분의 학습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유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유과정을 운영합니다. 자유과정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및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이 있습니다.



##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8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3)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가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해 외국 유명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의 경우 가능(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

원칙적으로 공연을 함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해서도 안 된다.**

특히,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연의 경우 직접적인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상품홍보 등의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실연자에게 공연에 대한 통상적 보수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에게만 자유이용을 허락하도록 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사례와 같이 그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성금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성금을 내지 않아도 공연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 온라인 자동상담 : <http://counsel.copyright.or.kr>
- 전화상담 : 02-2660-0050 / 이메일 상담 : [call@copyright.or.kr](mailto:call@copyright.or.kr)



# 2013. 12월 국정홍보만화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 02-3704-9575)

##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와 잣나무를 살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면 치료 약이 없어 3개월 내외에 100% 나무가 죽게 됨.



**신고**  
-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 산림보호/병해충/발생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3249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2014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시행 안내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8~6852)

### ○ 2014년 달라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올해까지 접종 당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2014년부터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 ○ 무료 예방접종 시행 개요

- 대 상: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내 용: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전액 지원

####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1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상반기 중 일본뇌염(생백신)도 지원대상 백신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안내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2-2023-8533)

-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로 인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간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양질의 간호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운영합니다.
- 치매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치매에 대한 지식 및 정보
  - ② 국가치매관리사업 관련 정보
  - ③ 환자의 문제행동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지침
  - ④ 치매환자가 이용가능한 공공시설 정보
  - ⑤ 돌봄자 대상 정서적 지지

##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02-510-2611)

### 도움이 필요하세요?

#### ○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공보건, 건강증진 등]

#### ○ 사회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기초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 ○ 인구정책

[출산·보육, 노인·아동복지, 연금정책, 사회서비스 등]

#### ○ 위기대응(365일 24시간) 상담 등

[긴급복지지원, 노인·아동학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

“보건복지에 관한 정책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모두가 행복한 행복주택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 044-201-4518)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모두가 행복한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주거해결

지역소통 및 교류공간

육아센터, 어린이놀이방

사회적기업 유치

파출소, 보건소, 주민센터

야외 문화공연장

야외스포츠클럽, 휴식공간

창업·취업센터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자리창출, 문화공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간입니다

젊은세대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세대에겐 우선 공급

젊고 활력 넘치는 복합문화타운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문화프로그램 도입  
사회적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창업·취업 지원



### 행복주택이란?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주거타운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창업·취업지원 및 소통공간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생활문화 공간입니다.



# 겨울철 건강과 경제, 에너지, 환경을 지키는 1석4조의 선택, “온[溫]맵시” 가 답입니다 !!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도 잦은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속 건강도 걱정되고,  
오르기만 하는 전기료로 날씨처럼 얼어붙는 가정 경제!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아. 직. 도....., 집안에서 반팔로 지내세요?  
유럽 등 외국에서는 약간은 쌀늘한 실내에서 스웨터나 카디건을 입고 겨울을 보낸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 ♣ ‘온[溫]맵시’ 무엇이 좋을까요?

- ☞ 면역력과 추위에 견디는 힘이 쑥쑥, 감기는 NO !!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추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
- ☞ 피부건조, 잔주름 걱정도 이젠 그만 ~
- ☞ 난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  
★ 실내온도를 2℃ 낮추는 경우, 가구당 **6만1400원**(3개월 기준)의 비용절감
- ☞ 난방온도를 2℃ 낮추면, **308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요!**  
★ 16백만 가구가 실천하면, 어린 소나무 10억 7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입니다

## ♣ ‘온[溫]맵시’ 어떻게 실천하나요?

- ☞ 겨울철 필수 아이템 ‘내복’으로 든든하게  
※ 내복착용만으로 **3℃의 보온효과가 있어요 ^^**
- ☞ 실내에선 가벼운 카디건이나 스웨터, 자켓으로 따뜻하게
- ☞ 외출할 땐 모자나 목도리, 장갑도 꼭 챙겨주는 센스

이제, 더 이상 18~20℃의 실내에서도 춥지 않겠죠?  
겨울철 가족사랑, ‘온[溫]맵시’로 실천하세요!

18℃~20℃

올 겨울 **Good** 아이템  
**내복이 면역력**입니다

이제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  
체온은 올리고, 올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옷 입기에 달려있습니다.

溫  
맵시

- 🏠 겨울철 건강온도는 18℃~20℃
- 📈 온[溫]맵시는 실내온도를 3℃ 올려줍니다.
- ❤ 온[溫]맵시로 체온을 올리고
- 🏠 전기, 난방비는 줄이세요!

## 청소년 여러분, 고카페인 음료섭취 주의하세요!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 043-719-2314)

### 고카페인 음료,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하세요

#### 1. 고카페인 음료 카페인 함량 어떻게 확인할까요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문구 및 해당 제품의 ‘**총카페인 함량(mg)**’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상품의 주표시면을 보시면 **총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때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어린이·청소년 체중kg당 2.5mg)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하세요

#### 2.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는 **불면증, 불안, 행동 및 정서장애, 신경과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많이 먹으면 살 쪼요 !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 043-719-2314)

### 열량은 높고 영양기는 낮은 식품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가려내야겠죠?

#### 1. 고열량·저영양식품이란 ?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과다섭취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

내가 구입한 식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궁금하다구요? 스마트폰용 앱으로 개발된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알림-e**”를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식품판별, 바코드 인식, 식품명 검색 등 3가지 기능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 매월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량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  
**설 명절 대비 1월 안전점검의 날 실시**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 02-2100-5274)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1월은 민족의 명절인 설이 있는 달입니다. 제214차 안전점검의 날에는 설 연휴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 캠페인과 전통시장·대형판매시설·터미널·복합상영관 등 취약시설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즐거운 설 명절 안전관리 수칙

< 멀리 떠날 때, 우리 집 안전관리 >

1. 집을 나서기 전

- 가스밸브와 잠금장치 확인
- 비눗방울을 이용 가스가 새는지 사전점검
- 불필요한 플러그나 콘센트, 전기코드 뽑았는지 확인

2. 집에 돌아와서는

- 가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
-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3. 우리 집 방법

- 대문(현관문), 창문 등 모든 출입문 문단속 철저
- 신문, 우유 등 배달되는 것들은 연휴기간 잠시 중단

< 건강한 명절나기 >

1. 적당한 휴식과 음식

- 상한 음식으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물과 이온음료를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
- 3~4일 이상 고열이 나면서 설사가 지속될 경우 이질 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

2. 화상을 입은 경우

- 깨끗한 찬물로 환부를 충분히 식힘
- 통증이 가시면 화상연고 바름
- 물집이 생겼을 때는 터트리지 말고 소독한 천으로 두껍게 감쌌
- 화상 정도가 심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치료

3. 생체 리듬 유지

- 밤에 무리 했더라도 기상시간은 지키고 토막잠으로 보충
- 연휴 마지막 날 일상으로 미리 귀가하여 편안한 휴식 취하기

< 귀성운전 휴식은 자주자주 >

1. 출발 전 안전점검은 필수

- 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교통상황을 확인
- 예비용 타이어, 삼각대, 휴대공구 등 기본 상비품 확인

2.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119나 병원, 보험회사에 신속히 연락
- 부상자를 구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처치
- 심한 부상자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신고

3.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은 편안하게

- 운전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휴대폰 사용 금지
- 2시간마다 10분 정도 휴식, 휴식 중에는 스트레칭

● 자동차의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

## 알아두면 편리한 우체국 우편서비스

(자료제공 :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 ☎ 02-2195-1274)

### 1 내가 보낸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증명한다!!

- 내용증명(內容證明)이란 어떤 내용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
  - 물품대금 독촉, 채권 채무이행 등 법률상 각종 최고(催告), 변제(辨濟), 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증명수수료\*는 문서매수(A4 기준)에 부과하며 전국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우체국([www.ePOST.kr](http://www.ePOST.kr))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내용문서 최초 1매 1,000원, 1매 초과마다 500원 가산 (2013.11.30.기준)

### 2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 이제 우편으로 편하게 받으세요!

- 우체국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등 각종 신분증을 고객이 있는 곳 어디에나 신속·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정의 우편이용료만 납부하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계약등기)입니다.
- 이용방법은 신분증 발급 신청 시 발급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에 “우편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우체국(<http://www.ePOST.kr>)

# 불법도박 신고(☎ 1855-0112) 협조 안내

(자료제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사·신고센터 ☎ 02-3704-0543)

**불법도박**  
신고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도박 장소나 운영자를 알고 계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로 검거시 포상금(최대 2천만원)을 드립니다.

**1855-0112**

〈신고분야〉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포함)  
▶ 사설경마·경륜·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사·신고센터)	1855-0112	www.ngcc.go.kr
경찰청	112	www.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www.netan.go.kr
한국마사회 (사설 경마)	080-8282-112	www.kra.co.kr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설 경륜·경정)	02) 2067-5888-9	www.kspo.or.kr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 스포츠포토, 승부조작)	1899-1119	www.cleansports.or.kr
(주)스포츠토토 (사설 스포츠 배팅)	1588-4900	www.sportstoto.co.kr

☐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에 빠져들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불법도박(인터넷카지노, 사설스포츠토토, 사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사행성 게임장)은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자도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각 개별법에 의거 처벌

○ 주민 여러분께서 불법도박을 보았을 때에는 불법사행산업 감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1855-0112) 또는 인터넷신고 ([www.ngcc.go.kr](http://www.ngcc.go.kr))도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은 불법도박 운영자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근거지, 차량번호, 증거자료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도박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 원정도박도 불법이므로 해외여행 시 자제해 주시고, 건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도박 신고(☎ 1855-0112), 중독예방치유상담(☎ 080-300-8275) ◆

# 1월의 독립운동가 김도현

(1852. 7. 14 ~ 1914. 12. 23)

## ◆ 국권회복의 염원을 천길 물속에 !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도현 선생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한말 대표적인 의병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1896년 영양 청량산에서 거의하여 경북·강원지역의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였고, 1905년 상소 투쟁과 더불어 격문을 지어 의병 궤기를 촉구하였으며, 1914년 국권회복의 염원을 안고 동해 바다에서 투신 순국하였다.

선생은 1852년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적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으로 유림들은 의병을 일으킬 준비에 나섰다. 선생은 영양읍에서 통문을 돌리고 영양지역 유생들과 의병 일으킬 일을 논의하였으며, 이듬해 2월 청량산에서 의병진용을 편성하여 무기를 조달하고 의병을 모집하였다.

선생은 의병부대의 통합을 시도하여 자신의 부대를 예안의 의병부대인 선성의진에 합류시켜 중군장을 맡게 되었고, 경북지역 7개 의병부대의 대표들과 함께 회맹의식을 갖고 승리를 기원하였다. 1896년 3월 연합의진은 상주 태봉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병참부대를 공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1896년 6월에는 민용호가 이끌던 강릉의진과 연합하여 강릉 대공산성, 보현산성 및 삼척전투에서 관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였다. 이후 선생은 선유어사의 권유를 받고 1896.10.15. 전기의병에서 마지막으로 의병부대를 해산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고 외교권이 박탈되자 선생은 을사5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여러 나라 공사관에 「포고서양각국문(布告西洋各國文)」을 보내 일제의 전횡을 막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상소투쟁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06년 1월 선생은 다시 한 번 투쟁할 것을 각오하고 포군 5~60명을 축으로 의병을 일으켰으며, 광무황제의 밀칙을 받고 삼남지역의 각 군에 「의격고삼남각군문(擬檄告三南各郡文)」 등을 보내어 의병 꺾기를 촉구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스승 이만도가 자정(自靖) 순국하자 선생은 최후의 방법으로 도해순국(蹈海殉國)을 결심하였다. 1914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동포들에게 드리는 글(與國內同胞)」 과 절명시를 남기고, '치명수지(致命遂志)'의 길을 선택하여 경북 영덕의 동해바다에서 투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62년 선생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하였다.

# 1월의 호국인물 김수현 해군대위

(1941. 3. 26 ~ 1967. 1. 10)

(자료제공 : 전쟁기념관 홍보팀장 이경은 ☎ 02-709-3107)



전쟁기념관(관장 선영제)은 베트남전 짜빈박 전투에서 끝까지 부상병을 치료하다가 산화한 김수현(金壽鉉) 해군대위를 2014년 '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941년 3월 26일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김수현 대위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하고 해군에 입대한 김 대위는 1966년 6월 23일 해병대 외과 군의관으로 부임했으며 같은 해 11월 3일, 주월 제2해병여단 3대대 의무실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김 중위(당시 계급)가 배속된 제2해병여단의 최초 작전은 베트남 중부 팡응아이 일대에 증강된 적을 탐색 소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67년 1월 5일부터 10일간 투망작전이 시작되었고, 제3대대는 전방 지휘소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기상악화로 작전이 연기되고 헬기지원이 어려워지자 짜빈박 마을을 거쳐 안디엠 마을까지 4km의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평소 아군의 보급 추진 등으로 병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짜빈박 마을 일대에는 하루 전부터 200여 명의 베트콩이 잠입해 한국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베트콩의 무차별 기습공격이 시작되면서 주로 권총과 소총만 소지한 제3대대는 적의 자동화기 사격에 대항하기 어려웠으나 신속히 몸을 은폐하면서 접근해오던 적에게 대항하였다.

여단본부와 통신은 두절되고 유탄이 마구 떨어지는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김수현 중위는 적의 공격으로 대퇴부에 중상을 입은 몸으로 본대가 철수한 후에도 현장에 남아 부상병을 치료하던 중 적의 수류탄으로 장렬히 전사했다.

김 중위의 희생에 힘입어 이 전투에서 우리 군은 적 사살 140명, 추정사살 95명, 포로 5명, 귀순 15명, 용의자 71명을 생포하고 소화기 4정을 노획하는 전

과를 올렸다. 한편 아군은 전사 32명, 부상 54명, 그리고 소화기 14정이 손실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67년 대위로 1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68년에 진해 해군해양의료원에 충혼탑이 건립되었고, 2013년 12월에는 해군 유도탄 고속함 16번함이 김수현함으로 명명되었다.

2014년 1월 9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해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